



## 디지털 황금 시대를 여는 마이데이터 사업

지난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금융·공공·교통·생활·소상공인 6개 분야에서 8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에서 금융 분야는 (주)핀테크가 주관하는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 개발’, (주)NH농협은행이 주관하는 ‘금융서비스를 연결하는 On-Device 기반 마이데이터 결합 플랫폼’ 서비스 과제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과제를 수행하기까지의 몇 가지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올해 1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 중 8월 5일 시행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도 물론 이 데이터 3법에 포함되어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조회업에 대해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요건을 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해 비금융전문CB와 정보조회업의 최소 자본금을 5억으로 낮추어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췄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해 비금융전문CB와 정보조회업의 최소 자본금을 5억으로 낮추어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췄다.  
 ”

###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 체계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지에 흩어진 개인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개인은 스스로 본인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다만, 개인이 직접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에게 위임 받아 신용정보를 통합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 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주요 고려사항

- 1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는지?
- 2 신용정보주체의 편의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 3 이해상충행위 방지 체계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 4 사업계획의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 5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에서 5월에 진행한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16개 회사가 참여했다. 이 중 금융회사가 55개(47.4%)로 가장 많았고 비금융회사가 41개(35.3%), 핀테크 기업이 20개(17.2%)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6~7월 중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하고, 7월 중 마이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PI 워킹그룹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꾸려진 회의체이다.

### ▶ 마이데이터 허가를 희망하는 참여 업체 유형

핀테크	금융회사 (55개 사)						비금융회사(41개 사)		
	은행	여전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IT 등	CB사	통신사
20	12	10	17	11	4	1	36	3	2

마이데이터는 허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수 총량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단일 금융그룹, 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불허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원 보안관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를 통해 전자적 침해 시도 모니터링·분석, 취약점 정보 공유 및 사고 상황 전파·대응 조치 수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허가 당시엔 사용자가 100만 명 이하였다가 이후 100만 명을 넘을 경우에는 1년 내에 금융보안관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도 지켜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주요 출자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차입으로 조성한 자금으로는 출자할 수 없다. 사회적 신용 기준도 지켜야 한다.

### ▶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한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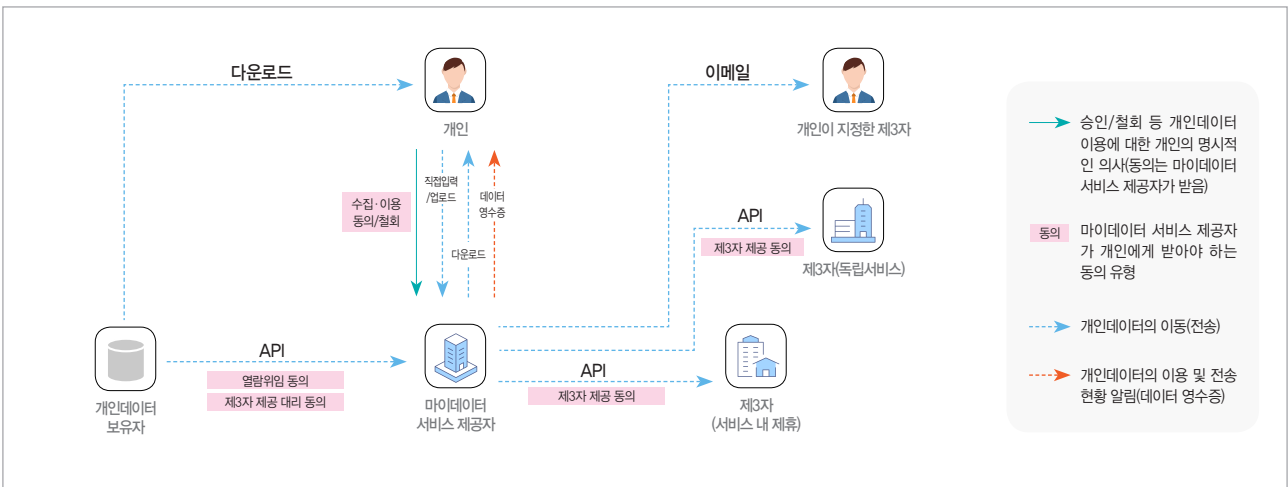
출자능력 등	사회적 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4의 요건)</li> <li>-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상 임원의 결격요건 미해당 <small>※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 받은 자 등</small></li> <li>-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li> <li>-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li> <li>-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li> </ul>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규제도 있다. 콜 마케팅 등 아웃바운드 영업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도 적용된다. 특정 고객 이익을 해 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같은 고유 서비스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위탁 등의 형태로 제3자가 운영하는 서비스 채널만을 이용한 업무는 불가능하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원칙에 의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투명성, 신뢰성, 통제권, 가치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통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 모델을 통해 개인정보 흐름과 공통 요구사항 적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공통요구사항은 동의, 제공, 이용내역관리 등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별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예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정보를 통합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에 대해 자문·추천하거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대리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 업권별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권	정보 활용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은행	계좌거래 내역, 대출 잔액, 금리·이자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 현황 등을 분석	저축·재테크 방안 안내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카드	카드사용 일시, 결제 내역, 카드대출 이용 등의 소비패턴 분석	다양한 카드사용 혜택 제공 및 합리적인 소비습관 개선 지원
금투	투자종목, 투자금액, 자산규모 등의 투자 정보를 통해 투자패턴 분석	세제 혜택, 투자습관 개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
보험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기간, 보장내역 등의 보험정보를 통해 노후 예측 및 건강 분석	연금관리를 통한 노후 설계와 저비용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핀테크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정보 주체의 정보권리 행사 대행
IT	금융과 통신, 유통 등의 데이터와 융·복합	통신정보기반 금융상품, 유통정보기반 금융상품 등 고부가가치 혁신 서비스 제공

### 데이터 허브,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금융, 비금융 데이터를 한번에 통합하여 조회하는 허브 역할로, 지난 5월 정부가 중계기관 총 9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중계기관은 코스콤,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한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정보공유센터다. 중계기관이 없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각각의 금융기관이 별도의 계약을 맺어 데이터를 유통해야 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 > 정부 선정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비씨카드를 중계기관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권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 대신 카드정보 프로세싱 인프라를 갖춘 비씨카드가 중계 역할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로서는 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이 데이터 중계를 위한 핵심 인프라 설비와 개발을 도맡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API)을 활용할 수 있어 인프라 자체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 내 행정정보공유센터도 중계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 신용정보 등을 행안부 내 행정정보공유센터가 다수 보유하고 있어 공유센터를 거쳐야 데이터 유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안부도 중계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발표 이후 중계기관을 조속히 선정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마이데이터 산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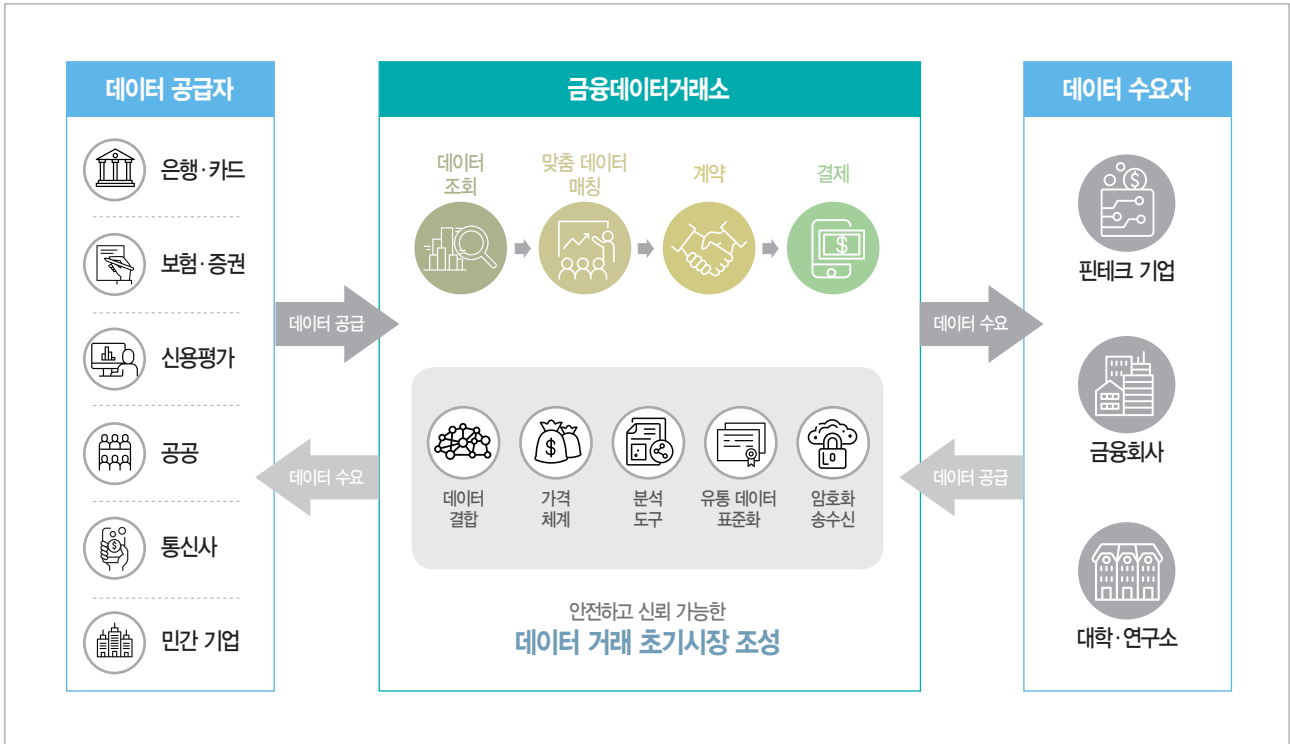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은 여러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중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데이터 유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즉,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API 기술에 대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하며, 여기에 보안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마이데이터에 대한 과금 모델을 포함해 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과 관련된 범위까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중계기관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 마이데이터와 금융데이터거래소

마이데이터는 궁극적으로 데이터량의 증가와 수집 및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유통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보안원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의 주요 플랫폼인 ‘금융데이터거래소’를 출범했다. 데이터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시스템을 말하며, 데이터 검색, 계약(구매),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금융데이터거래소가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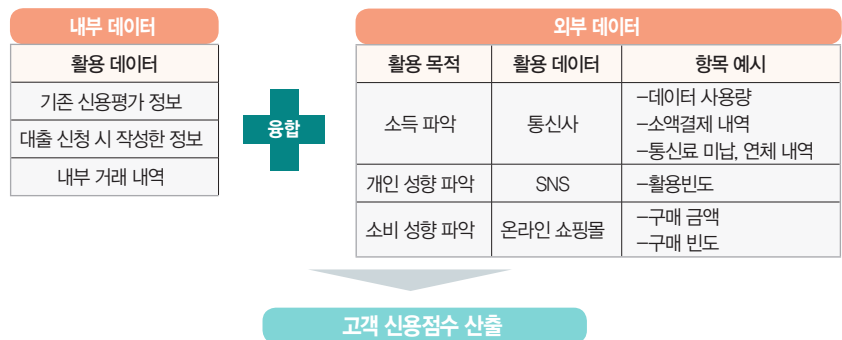
▶ 금융데이터거래소 운영 방식



주는 시장 역할이라면,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은 고객이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해당 데이터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데이터 유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에서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거래소 관련 이해관계자와 거래 프로세스, 상품 유형 및 활용 사례,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 산정, 품질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의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 데이터 유통을 통한 신용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례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에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받은 통신사나 SNS, 온라인 쇼핑물 등의 데이터와 결합해 정교한 고객 신용점수를 산출하여 적절한 금리 선정이나 연체율 감소, 신규 고객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 혹은 공공의 유동인구, 상주인구, 주거인구 데이터와 금융권의 부동산, 기업정보, 카

드 결제 등을 융·복합해 매출·업종·지역 등 잠재 수요를 도출, 창업 희망자에게 상권 분석 자료를 제공하거나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활성화 지원도 가능하다.



###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사업

거의 모든 은행이나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 제공사로 참여했다. KB 국민은행은 지난해 출시한 이동통신서비스 리브엠(Liv M)을 통해 수집한 고객 데이터를 발판으로 사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리브엠 가입자는 6만 5,000명을 돌파했다. 하나은행은 정보를 분석해 고객 관심사와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다. 우리은행 역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연합 진영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시장 동반 진출을 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BK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사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 모델 마련에 돌입했다.

코스콤은 NH투자증권과 기존 증권사 자문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코스콤이 모바일·데이터 분석 및 인프라 등 관련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NH투자증권은 이 플랫폼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금융상품을 추천, 계좌개설·잔액관리·상품구매 등을 한곳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소개한 금융데이터거래소는 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 사용 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면 보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  
사용 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면 보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마이데이터 산업이 가져올 변화된 일상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존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신사업 전개이며 데이터를 활용해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한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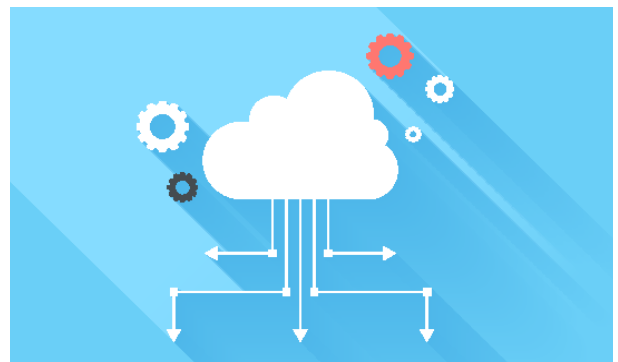
실제로 중국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WeBank)'의 경우, 온라인 쇼핑 이력,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 이용 현황 등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덕분에 신용 이력이 많지 않은 주부나 학생도 손쉽게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선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질까?

스타트업 A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부동산의 위치, 인근 시세, 건물 연식, 주변 상권 유무 등의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학습시켜 최종적으로 건물 가치를 산정해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A사는 한발 더 나아가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해주는 엔진을 도입하고, 전세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 매출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연 20%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직장인보다 소득 정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높은 금리를 매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B씨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은행이 계열사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로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 정보, 현금 흐름 등을 파악해 B씨의 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서비스들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이는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을 담당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사전심사에 통과한 신청인에 한해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5일) 이후 우선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인포그래픽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Infographics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관련 자료 한눈에 보기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 효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주요 내용

<p><b>통합 조회</b></p> <p>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예금·대출·보험납입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손쉽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p>	<p><b>맞춤형 서비스</b></p> <p>투자·소비·지출 등에 대한 다양한 패턴을 분석하여 절세, 저축 등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지원</p>	<p><b>권리 보장</b></p> <p>금융회사 등에게 전송요구권, 열람 청구, 삭제 요구,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정보주체의 정보권리 행사를 대항</p>
---	--	--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본인정보(예시)

예금·대출	월 납입액, 금리, 만기일, 대출잔액, 상환일, 이자 등	보험	보험 만기일, 납입 금액, 주기, 보험대출 정보 등
신용카드	결제내역, 포인트, 청구금액, 할부정보, 카드대출 정보 등	금투자상품	거래단가, 잔액, 매입금액, 계좌상태, 예수금, 세제 혜택 정보 등
통신	통신료 납부내역, 소액결제내역 등	지급결제	간편결제, 간편송금, 전자화폐충전금액, 포인트 등
공공정보	행안부, 국세청 등의 국세·지방세 납부정보, 전기·수도 납부정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정보 등 공공부분의 신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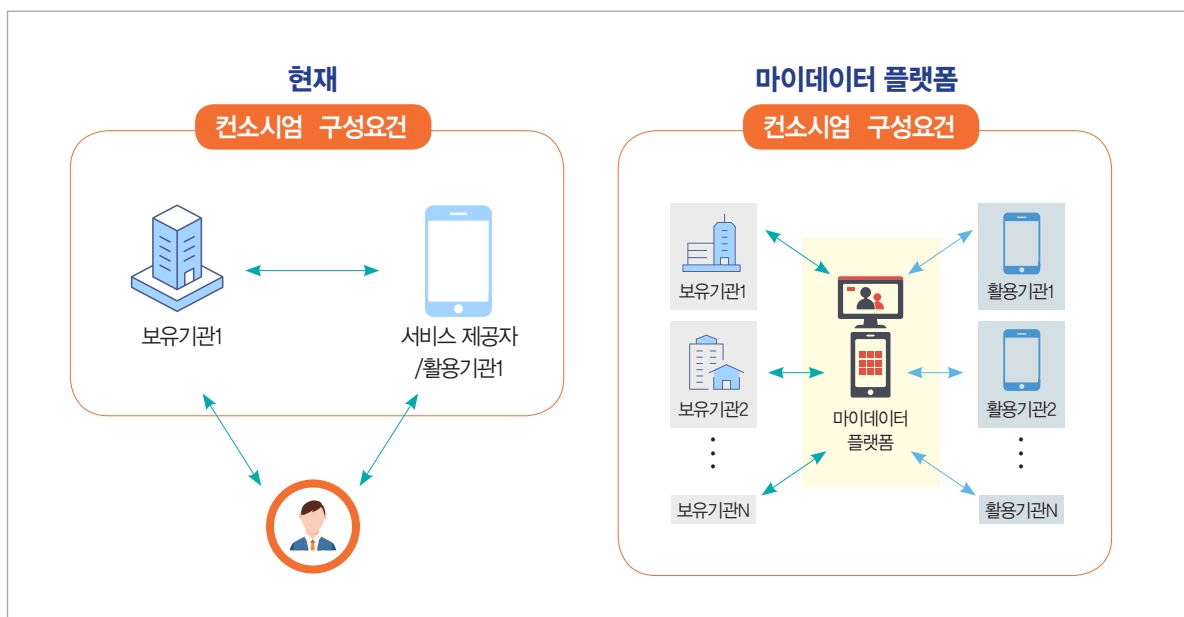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영업 범위

업무	내용	사례
고유 업무: 본인 신용 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	
부수업무: 정보 관리 및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 등	개인에 대한 정보관리업무	①데이터 분석·컨설팅 ②정보계좌 업무 ③정보관련 권리(예:프로파일링 대응권) 대리행사 업무
	유희 인력·설비로 수행 가능한 업무	①관련 연수·교육·출판 ②금융상품, 기업·법인 상품 광고·홍보 (→단순 광고 배너 게시 등) ③식별확인 업무 ④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기타 데이터 관련 업무	가명·익명정보의 이용·제공 업무
경영업무: 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①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자문·투자일임' ②금융상품자문업 ③대출의 중개·주선
	핀테크 관련 산업	①전자금융업 ②신용정보업 ③P2P사업

※비금융업무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자유로운 경영 허용

▶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 실증서비스 개념도



▶ 2020년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목록

분야	과제명	수행기관		서비스
		주관	참여	
의료	분산원장증명(DID)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주)엔디에스	(주)유투바이오 장원의료재단 약학정보원 (주)교보생명 (주)진원온원	전자처방전을 개인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해 스스로 정보를 관리, 중복 검사를 억제, 맞춤형 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개인 의료·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	(주)평화이즈	카톨릭대 산학협력단 경희의료원 커넥타젠(주) (주)메디플러스솔루션 (주)미셀푸드	개인의 건강검진 및 의료 처방 데이터를 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며 유전자분석, 정신 건강·생활습관 관리 등 개인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 제공
금융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 개발	(주)핀테크	SK텔레콤(주) SK에너지(주) SK네트웍스(주) (주)전북은행 (주)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주)	개인의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공공·금융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
금융	금융서비스를 연결하는 On-Device 기반 마이데이터 결합 플랫폼	(주)NH농협은행	(주)에스엔피랩 농협생명보험(주) 농협손해보험(주) NH투자증권(주) NH농협캐피탈(주) NH저축은행(주)	개인 데이터를 행동 순서에 따라 수집·결합해 개인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공공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공공 교통수단 클린이용 서비스	서울특별시	BC카드(주) 네이앤컴퍼니(주) (주)KST모빌리티 유아이네트웍스(주) 한국교통연구원 코리아크레딧뷰로(주)	공공 교통수단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 알림 서비스 확대 및 통합 경로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활	직장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M-Box	(주)한컴위드	고려대 산학협력단 (주)세친구 네이버비즈니스 플랫폼(주) (주)망고플레이트 (주)디스크라이 (주)GS리테일 (주)소프트넷 (주)휴니버스글로벌 BC카드(주)	개인의 건강진료와 카드 내역 분석을 통한 직장인 맛집추천, 정신 건강 관리, 장비기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소상공인 신용평가 기반 상가 부동산 가치 정보 거래 플랫폼	소상공인연합회	신한카드(주)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주)코렉스플래닝 (주)한국금융솔루션 (주)케이원정보통신 한국부동산사업 협동조합	상가 부동산 데이터 수집·유통을 통한 대졸연계 소상공인 평가모형으로 점포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상권분석 제공
교통	Micro-MaaS MyData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데이터 에코시스템 구축	(주)데이터얼라이언스	(주)레디우스랩 (주)나인투원 (주)이비카드 아토리서치(주) (주)크로센트 부천시	개인의 MaaS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최적의 교통수단 재배치 방안 분석

### ▶ 마이데이터 허가의 법령상 요건

구분	내용
자본금	최소 5억원
인적 요건	법률상 별도 전문인력 요건이 없으나, 안전한 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충분한 정보보호 담당자를 충족할 것을 권장
물적 요건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통신설비 구축
대주주 요건	주요 출자자는 시행령에 따른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관리·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건전·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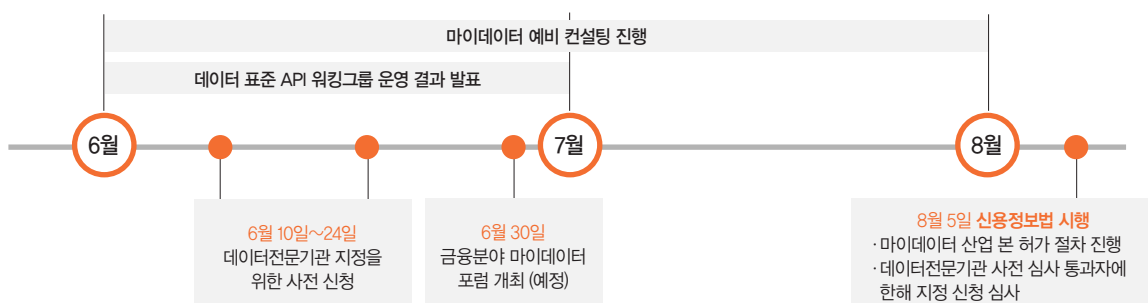
### ▶ 마이데이터 사업자 특성별 허가 기준

구분	내용
총량 규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수에 제한 없음 -단일 금융그룹, 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
금융분야	별도의 신청제한이 없으나 개별 금융업법에서 별도로 마이데이터 영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 반려 처리 Ex)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자의 경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포함되지 않아 채권추심업자는 마이데이터 산업 수행 불가 Ex)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업자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법 시행 전 마이데이터 사업영위자	법 시행(~20.8.5) 이전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 여부와 허가 가부는 원칙적으로 무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음
비금융분야	주요 출자자는 시행령에 따른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는 것인 만큼, 금융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낮은 경우* 허가 불가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신용정보의 수집·관리·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건전·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

### ▶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산업 준비 현황

기업명	내용
우리은행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준비 태스크포스팀(TFT) 출범, 빅데이터 플랫폼과 '전사 데이터웨어하우스(EDW)'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데이터웨어 하우스 아키텍처' 구축
하나은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제공하는 '손님빅데이터센터'의 인적자원 강
농협은행	개인 금융생활 분석 서비스, 차량 데이터 연계 서비스 출시 예정
KB금융그룹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함께 금융보안원 안전성 평가 완료, 각 계열사와 서비스 공유 본격 착수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사업권 획득 추진, PFM 서비스 추진, 은행권 최초로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데이터 판매 시작
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허가 준비, 7월 앱 개편 준비,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200명 신규 채용

### ▶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일정



자료: 금융위원회